

미국치과의사가 본 소련의 치과

—소련연방 볼가그라드의 치과 방문기—

이 글은 미국치과의사 한 사람이 소련을 관광차 들렀다가 치과의사로서 호기심을 갖고 어느 한 치과를 둘러 보고 느낀 점을 기술한 것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치과의사협회지(J. A. D. A. Vol. 90, Mar. 1975) 3월호에 게재될 내용이다. 필자는 Michael C. Wolf, D. D. S.이다.

— 편집자 주 —

필자는 7월에 소련연방을 관광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5대도시의 하나로 일찍이 스탈린그라드로 알려진 볼가그라드에 소재한 치과를 들린 적이 있다. 그 치과에는 치료의자 12대를 갖고 있었다. 실제 떠나기전 관광일정이 정해져 있었으며 치과를 방문하겠다는 공식적인 허가나 수락을 받지는 않았었는데 어느날 길가에서 소련 한 소녀에게 나는 치과의사인데 소련의 치과 구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쾌히 안내하여 주었던 것이다. 얼마만큼 가서 나를 밖에 기다리게 해놓고 소녀가 먼저 들어가 이야기 하고 나오더니 들어가자 하여 낯선 소련의 치과에 들어선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해서 구경했다. 치과의사는 전부 여자였고 반갑게 맞아 주었다.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진단실로 두대의 치료의자는 아마 1940년도 제품인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유닛은 설비가 잘 되어 있었고 여러가지 기구는 냉소독용액(cold sterilization solution)에 담겨있었다. 그리고 유닛의 타구(cuspridor)는 불결했으며 환자는 한번 쓰고 버리는 종이컵을 사용치 않고 유리컵을 썼다. 유리컵은 어떻게 소독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필자는 5개 대도시를 다 둘러 보았지만 어디서나 동철을 넣는,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소다수자동판매기에도 두세개의 껍만 준비해 놓아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또 컵은 냉수와 술을 사용하여 몇번 닦는 것으로 그치고 있었다. 치과의사들이 치료중에는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 구강외에서는 줄곧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보존과치료실은 바로 이웃 방에 있었는데 엔진으로 벨트를 이용한 것이었고 그 치료실 내에서 하이·스피드·핸드피스(高速 핸드피스)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마침 12세 소녀가 상악제, 대구치의 근심과 교합면에 걸쳐 이환된 충치의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배타기(Saliva ejector)를 사용치 않았으며 오로지 2X2짜즈(gauze)로 시술부위를 건조시키고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때 와동형성이 끝났는데 좀 보아도 되겠냐고 물었다. 1급 와동형성으로 근심소다(mesial pit)만을 형성했을 뿐 예방확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근심과 교합면의 와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와동의 형태는 단지 움푹 파놓기만 하였다. 그리고 일종의 레진으로 액과 분말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기구로 와동에 충전했고 매트릭스(matrix)도 사용치 않았다. 아말감은 사용치 않느냐고 묻자 자기네들 치료실에서는 사용치 않는다는 대답이었다.

필자가 이방을 떠날때 소련치과의사는 자랑스럽게 비금속충전물(nonmetallic restoration)로 충전한 환자의 구강을 보여주었다. 여기에도 중심소와(central pit)만 채웠고 어떤 예방확대나 형태부여는 없었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보게 된 것은 아마도 공상 과학 소설(science fiction)을 쓰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과 같았다. 즉 내환자는 치아와 연조직에 감염을 제거하는데 전기치료(electric treatment)를 받고 있었다. 약 3인치 직경의 원판이 달리고 마치 적은 "defibrillator"와 같은 두 전극을 전기회로에 연결시킨 것이었다. 환자는 수직으로 앉아서 피부에서 약 1인치정도 떨어져게 해당치아와 반대측에 즉 양안면에 위치시켜 들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전자장(electric field)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를 하루에 10~15분간씩 하여 3일에서 5일간 한다는 것이다. 호기심을 갖고 통역을 통하여 물어 보았다. 그리고 실환된 구치(nonvital molar)에 근관치료전에 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들에 의하면 발치후 발치와감염에도 효과적이라고 했다.

또 보철물에 대해서는 볼 기회가 없었으나 증년층에서는 금이나 철(steel) 금관을 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젊은 층에서는 심미성을 추구하여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통역안내양의 말이였다.

내가 슬쩍 본 소련의 치과과학계는 아직도 진도가 요원하다고 느꼈다. 현대식으로 연판으로 보호한 X-선 기계를 제외하고 나면 내가 본 피상하고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아 우리 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졌다고 보인다. 치료는 서서하고 치과용실(dental floss)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까지 했고 통역에 의하면 소련치과의사말이 처음 듣는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충치와 치주질환이 우리 미국에서 처럼 소련에서도 이환율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식량은 충분하고 기아로부터 예방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길가에는 파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음료수를 대량 팔고 있었고 또 그렇게 판매 소비되고 있는 것도 목격하였다.

내가 치과를 나오기 직전 구구강외과용 기구 보자 했더니 감자, 엘리베이터와 여러가지 기구를 전부 보여주었다. 그때 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했더니 "뭐 잘못됐습니까"하며 소련치과의사는 웃으며 이어 "이곳 사람치아도 역시 사람의 치아이니까요"했다.